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 김사무엘 선교사 / 2002.10.01 -

시편 24:7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찌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들아 라는 말씀이 두 번 반복이 됩니다. 첫 번째 문은 영어번역에 의하면 gate 라고 해서 입구에 있는 대문을 뜻하고 두 번째 문은 door 라고 해서 대문 안에 들어간 후에 본관에 들어가는 출입문이나 본당에 입구를 뜻합니다.

지난주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선교를 향한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대문은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영역을 향하여 그 문을 들어올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록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18절에 이 대문을 음부의 권세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선교는 음부의 권세가 문을 닫은 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고 살인하는 현장에 이르러 그 권세에 도전하여 문을 열고 항복하라는 선전포고이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복음의 문이 한번도 열린 적이 없이 창세 이후로 그 문을 꼭 닫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속이며 살아온 사탄에게 이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가 임하였으니 그 문을 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는 것이 선교가 아닐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풍신수길이가 진을 치고 온 일본을 다스렸던 대판성이 생각났습니다. 그가 일본 천하를 통일하고 조선과 중국까지 점령하여 동양을 지배할 원대한 꿈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본대판에 교회 개척을 위하여 일할 때 주신 말씀이 곧 이 말씀이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갈지어다” 권모술수로 일본 전국을 수중에 넣은 풍신수길은 기독교를 핍박하여 수 많은 신부들과 신자들을 처형했고 그 후 삼백년이 넘도록 일본에 흑독한 종교 탄압을 더하여 온 바로 그 자리에 교회를 개척할 때 주님은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이 성에 영광의 왕으로 들어가실 것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이 교회가 이 년 전에 개척이 되어 지금 잘 자라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따라서 선교는 대적들이 점령하고 있는 성들의 문을 열어 진격하는 영적 공격이요 하나님 권세의 도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했습니다. 이 문들은 성안에 있는 본당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을 뜻합니다. 이곳은 성주가 사는 곳이요 그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그가 직접 다스리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성전 양식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것처럼 이곳은 대적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 곳에 주님이 이르러서 선포하시기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지금까지 음부의 권세를 행세하고 있었던 지옥의 임금에게 그 자리를 내놓고 떠나라는 명령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거짓과 살인으로 인류를 속여 왔던 영원한 문들을 들어 올리게 하여 사탄의 전모를 밝히고 빛의 임금이 그 보좌에 임하여 천국의 다스림이 시작되는 것이 곧 선교입니다. 이 새 임금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다스릴 것이며 백성들은 기쁨의 환성과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가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선교의 도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 「온누리칼럼」 제공